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를”

진안군 사회단체 30여 회장단, 기자회견서 밝혀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진안군 사회단체 30여 회장단(대표 회장 원봉진 애향본부장)은 2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회장단은 “진안 낙후라는 꼬리표를 댈 수 있는 길은 오직 진안을 상징하는 마이산 주변 개발뿐이다.”며 “15년 전 용담댐으로 문전옥답 1,000만평이 수몰되면서 주민 1만5,000명이 진안 고향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도립공원인 마이산 주변은 5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하나도 변한 건 없다.”며 “1980년대만 해도 연간 관광객이 2백만명이 넘게 찾아왔으나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연간 120만명 정도가 다녀간 한다.”고 말했다.

마이산 케이블카는 관광위락시설이 아니라 마이산의 신비로움을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볼 수 있는 편의시설이요 노약자 및 가족 동반한 청춘남

녀와 어린이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통행과 교통의 수단이다며 마이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계단으로 이루어진 재를 걸어서 넘지 않고도 마이산의 명소인 돌탑까지 이어지는 공중교통수단인요 노약자 가족동반 청춘남여 관광객의 편의시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마이산 케이블카 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2017년부터 착수하여 2018년도에 완공 2019년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총 시 설비는 190억정도로 낙후지역 개발 사업비를 국토부로부터 140억원 정도를 지원 받고 지방비 4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익면에서도 2015년 기준 설악산 내장산 대문산 밀양열을 케이블카 탑승을 역시 탑방객 중 24%정도가 케이블카를 이용하고 있다며 마이산 향후 탑방객 연간 200만명으로 추산해 볼 때(년간50만명×1만원=년간 50억원정도) 50억원 정도가 수입이 되



면 2019년 첫째 운영기준 약 30억원이 든다 해도 적자 없이 흑자가 된다고 전망했다.

결론으로 우리 30여 사회단체와 더불어 많은 군민이 보는 견해는 전주 한옥마을에 오는 연간 7~8백만명의 관광객을 셔틀버스를 운영 30분거리인 마이산 탐방객으로 유치 할 경우 분별 연간 100만명 이상 마이산 투어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확실한 대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 지리산권 케이블카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정권 의회에서는 순수한 군비 450억원을 집행부에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는 약속서를 체결한 바도 있다며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반딧불사과, 홍콩 입맛 사로잡다

프레코 인터네셔널사와 협약 4개월 간 20톤 규모 공급

반딧불사과의 중화권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날 홍콩 수출 길을 연 무주군은 지난 1일 홍콩 현지에서 프레코 인터네셔널사(대표 Mr. Sin Stefany)와 반딧불사과의 홍콩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무주군(군수 황정수)과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영철)이 4개월 간 20톤 규모, 미화 5만 불 상당의 사과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수 군수는 “홍콩이 믿고 찾는 무주반딧불사과가 다시 찾는 무주반딧불사과가 될 수 있도록 생산과, 품질관리, 납품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며 “오늘의 인연으로 무주반딧불사과의 세계와 꿈이 이뤄지고 무주에서 생산한 또 다른 농산물의 수출 길도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기반으로 무주군은 3일 까지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과 농협 중앙회 무주군지부(지부장 정재호), 무주농협(조합장 광동열), 구천농협(조합장 양승욱) 관계자들과 함께 홍콩에서 열리는 대규모 판촉행사에도



무주군은 지난 1일 홍콩 현지에서 프레코 인터네셔널사(대표 Mr. Sin Stefany)와 반딧불사과의 홍콩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반딧불사과는 홍콩 전역에 280여 개 점포를 두고 있는 웰컴 슈퍼마켓(Welcome, 惠康 / 홍콩시장)을 60%) 비롯해 마켓 플레이스(Market Place)와 스리 식스티(Three Sixty / 유기능마켓) 등 홍콩을 대표하는 유명 마켓에서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현지인들은 “사과가 굉장히 달고 사각거리는 식감이 너무 좋다”며 “한국

에서 안전하게 키운 사과의 맛과 품미에 감쪽 놀랐다”고 전했다.

반딧불사과를 수입한 프레코 인터네셔널사(대표 Mr. Sin Stefany)는 한국산 신선 과채류와 동남아시아 열대과일, 중국산 사과, 배, 이스라엘 단감 등을 수입하고 있는 업체로 한국농산물 수출액만 연간 미화 40억 불 규모(전체 수출액의 3%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태권체조의 매력 속으로...’

무주국민체육센터서 성황리 열려

제12회 웰빙태권체조 및 시범페스티벌이 12월 3일과 4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전북일보가 주최,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과 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가 주관하고 전라북도과 무주군,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전라북도태권도협회가 후원한 가운데 3일 열린 개막식에는 황정수 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 최동열 전북태권도협회장,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과 무주군태권도지도원육성추진위원회 김남호 위원장을 비롯한 선수와 지도자 등 2천 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황정수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무주가 웰빙태권체조와 시범페스티벌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대회가 2017 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알리고 더 많은 관객들을 불러모으는 계기, 성공적인 세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 선수들은 “태권도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음악에 맞춰야 하고 팀원들과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태권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전한다는 의미와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이 대회와 참가한 모든 선수들을 통해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웰빙태권체조 및 시범 페스티벌은 태권도 성지 무주를 알리고 태권도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인 가치를 올바르게 확산 시킨다는 취지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로, 올해는 웰빙태권체조 부문에 초 ? 중 ? 고등부 학생들과 일반(만 18세 이상 50세 이하), 장년부(만 50세 이상) 선수들이 참가해 자유안무로 실력을 겨뤘다.

개인경연과 팀 경연 자유구성종합경연 등이 펼쳐진 시범경연 부문에서는 유 · 청소년부와 중 ? 고등부와 성인부 선수들이 참가해 월등한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대회의 명성을 높였다.

참가 선수들은 “태권도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음악에 맞춰야 하고 팀원들과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태권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전한다는 의미와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이 대회와 참가한 모든 선수들을 통해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31일까지 특별 징수활동 실시

장수군은 건전한 재정운을 위해 출납폐쇄기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12월 한 달 동안 특별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11월말 현재까지 지방세입 체납액이 11억1,200만원으로 지방세 6억 500만원과 일반회계 세외수입 507백만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큰 장애요소로 파악됐다.

이에 군은 특별징수 기간 동안 예금, 봉급,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 압류 후 추심, 압류재산 공개처분 및 채

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생계 곤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군에서 지급하는 쌀·밭·조건불리 등 각종 직불금 대상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체납이 있는 168명에 대해 압류 후 추심할 예정이다.

최훈식 재무과장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체납액을 총력 징수해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종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특별기획

완주 고산 교전경로당 준공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완주군 고산면 교전경로당이 2일 박성일 완주군수,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와 마을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총 1억12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63.38㎡의 규모로 지어진 교전경로당은 향후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의 장으로 쓰일 예정이다.

교전마을 김명태 경로당장은 “그동안 노후되고 비좁은 사랑방에서 불편하게 생활했는데, 쾌적한 보급자리를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100세 시대 경로당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일 군수는 “경로당 준공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보급자리뿐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의회, 예산안 심의 돌입

무주군의회(의장 유승열)는 2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2016년 대비 24억원(0.85%)이 증가한 294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8억원(3.13%)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53억원(12.85%)이 감소했다.

분야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58억원(22.37%), 사회복지분야에 436억원(14.82%), 환경보호에 372억원(12.64%), 문화 및 관광분야에 302억원(10.28%)을 편성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를 비롯해 민선6기의 핵심사업인 농업·관광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열 의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무주군의 미래를 보고 예산이 짜여졌는지 꼼꼼히 따져봐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승 위원장은 “선심성·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무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데 재원이 집중투자될 수 있도록 심의에 철자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성료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성일 완주군수, 김성수)가 지난 1일 경천애인농촌학교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민·관 협력으로 복지 희망을 밝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대표·실무협의체, 실무부와 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현연위원의 ‘나를 위한 민관협력 이야기’ 주제의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미정 사무국장의 사례발표를 통해 민관 협력으로 사회보장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위원간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응치전적지 재조명 나서

진안군(군수 이항로)이 임진왜란 당시 주요 전투지인 응치전적지에 대한 재조명과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8,000만원의 본예산을 편성하여 응치전적지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와 문화재 조사를 추진하고, 향후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적 정비와 역사교육·체험과 문화관광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응치전적지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관군과 의병 연합군이 호남을 점령하기 위해 전주로 향하는 왜군과 벌였던 응치전투의 현장이다.

응치에서의 격렬한 저항에 의해 왜군은 끝내 전주 점령을 포기하고 퇴각하게 되는데, 이는 호남을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를 기리기 위해 응치전적지는 1976년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관내 응치전적지에는 당시 전투와 관련된 유적이 적지 않게 남아 있는 것으로 2006년 학술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